◇천수만의 오리류는 간월도와 부남호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헤엄치고 있는 쇠오리.

◇천수만 새들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큰기러기.

◇우리나라에 오는 도요새중 가장 큰 마도요.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 서산 천수만 간월암

글·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이호신 作 '간월암(29×63cm)' 2002년

80여종의 철새들 겨울 보금자리

간월도 언덕 곰솔숲 북녘선 보기 힘들어

만공·춘성·효봉·금오·성철 스님 수행한 곳

전세계의 가창오리 90%가 한국서 월동

천수만은 충남 홍성땅과 안면도 사이에 있는 서해의 좁고 긴 만이다. 그 가운데 반도처럼 불쑥 나온 서산 부석면 간월마을을 사이에 두고 1995년에 좌우로 길게 둑방을 쌓고 간척을 해 2개의 큰 담수호를 만들어냈다. 간월호와 부남호가 그곳이다. 간월도는 두 호수를 잇는 제방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간월도는 해방 전까지 안동 김씨네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1942년 만공선사가 간월암에서 천일기도 끝에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천수만이 간척되기 전에는 창리포구에서 배를 타고서야 간월도로 건너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간월도를 잇는 방파제가 생기면서 육지와 이어져있다. 간월도 언덕배기에 곰솔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곰솔은 일반 소나무보다 잎이 크고 억세다. 또, 줄기가 검다고 해서 흑송이라고도 하고, 해안과 섬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해송이라고도 한다. 일반 소나무의 겨울눈은 붉은색을 띠지만, 곰솔의 겨울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된다. 곰솔은 해마다 한층의 가지를 내는 단절성 소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만 보고서도 나이를 알 수 있다. 소나무보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북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소나무다.

간월암은 간월도에서 다시 30미터 가량 떨어진 거대한 바위섬에 홀로 앉아 있다. 뿌리 없는 전섬에 신라 원효가 처음 세웠다고 전하지만, 고려 말 무학대사가 바다에 뜬 달을 보고 홀연히 깨쳤다 하여 간월암(看月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다는 전설이 더 널리 회자되고 있다. 만공 이후, 경봉·춘성·효봉·금오·성철 등 한국 현대불교의 기라성같은 선각자들이 수행의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간월암의 겨울생태는 역시 철새가 중심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001년 겨울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93만여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매년 천수만을 찾아온다. 종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80종 안팎의 새들이 월동하고 있다. 겨울철새들이 많이 찾는 까닭은 천수만의 간척으로 전에 없던 농경지와 민물호수가 생기면서 새들의 먹잇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수만 주변에 흩어져 있는 '황새기쪽부리' '오리골' '새골' '날새' '금학(禽鶴)' 등등의 지명들을 보면 예전에도 새들이 적잖이 날아들었던 모양이다. 부석면의 진산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닮았다는 '도비산(島飛山)'인 것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

천수만 탐조는 주로 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간월호와 부남호 지역, 두 담수호 주변의 농경지역, 방조제 바깥 바다쪽 갯벌지역 등 세 곳이다. 간월암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천수만 하면 기러기류와 오리류를 먼저 꼽는다. 기러기들은 농경지를 삶터로 하고, 오리류들은 두 호수와 바다를 삶터로 하고 있다. 천수만에 기러기가 찾아오는 시기는 대개 추수가 끝나고 쌀쌀한 찬바람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곳의 기러기 종류는 큰기러기가 대종을 이룬다. 시베리아 동부 캄차카 부근에서 날아오는 큰기러기는 현재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리는 검고 깃털은 어두운 갈색 얼룩무늬다. 검은 부리 끝에 주황색 띠가 특징적이다. 먹이는 주로 곡식, 열매 등 식물성이다. 천수만 들머리인 궁리마을 앞쪽 먼 논들과 간월호 방조제가 끝나는 지역의 논들에 많이 모여 있다. 간월암 들머리의 무논지역에도 1천여 마리가 내려앉는다. 개중에는 쇠기러기 가족들도 수백마리 끼어있다. 옛 사람들은 황새, 백로, 두루미 등을 두루뭉실하게 '학(鶴)'이라고 불렀다. 옛 사람들은 학을 소나무와 거북 등과 함께 천년을 산다는 십장생(十長生)으로 쳤다. 황새는 천수만의 학 가운데 단연 진객(珍客)으로 꼽힌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시베리아 아무르지역에서 해마다 몇 마리가 날아와 4월까지 이곳에 머물다 간다. 황새는 흰 몸통에 날개 끝만이 검은 색으로 되어 있다. 백로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서있을 때는 두루미처럼 꼬리부분이 검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천수만의 오리류는 간월암 지역과 부남호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가창오리·청둥오리·고방오리·흰뺨검둥오리·넓적부리·물닭·쇠오리 순으로 많다. 새들의 짝짓기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패턴은 짝짓기와 번식기간 동안만 부부로 있다가 새끼가 다 자라 둥지를 떠나게 되면, 부부관계가 해산되는 게 보통이다. 청둥오리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수컷은 바람둥이라서 짝짓기때만 암컷에 열을 올릴 뿐, 암컷이 알을 낳아 부화하는 데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제 새끼가 태어나도 무관심한 편이라고 한다.

천수만의 실세는 청둥오리이다. 청둥오리는 전국 어딜 가나 흔하게 관찰된다. 때문에 겨울 철새 가운데 가장 눈에 익고 친숙한 철새이다. 청둥오리 암수는 노란색 부리만 닮았을 뿐, 색깔이 크게 다르다. 수컷이 암컷보다 더 화려하다. 뺨에는 녹색 광택을 띠고, 목에는 하얀 목도리를 둘렀다. 고니는 흰 밍크코트를 걸친 듯한 눈부신 몸과 부츠처럼 검은 다리가 인상적이다. 덩치는 크지만 성질이 온순해서 백조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새다. 천수만의 가창오리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약 30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 약 90%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창오리는 한곳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한다. 10월 중순부터 천수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창오리는 12월 초순경 전남 해남지역으로 이동해서 한달간 겨울을 난 뒤 금강유역으로 올라와 한달간 머물다가 자기 고향인 시베리아로 북상한다. 한번씩 떼를 지어 물위로 솟아오를 때면 주위가 어두워질 정도로 하늘을 뒤덮는다. 섭금류란 도요새와 물떼새처럼 물가를 걸어다니는 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섭금류들은 거의 대부분 나그네새들인데, 겨울에 보이는 섭금류들은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겨울을 이곳에서 날 작정으로 주저앉은 녀석들이다. 간월암 주변 갯벌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도요새와 물떼새는 롱다리라는 점에서는 이웃사촌이지만, 사냥법에서는 좀 다르다. 부리가 긴 도요새들은 부리를 갯벌 속에 집어넣어 먹이를 찾지만, 물떼새는 먹이가 밖으로 나오면 잽싸게 달려가서 사냥을 한다. 마도요는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도요새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암수의 모양이 같다. 아래로 굽은 긴 부리, 연한 회갈색에 다갈색 작은 점이 박혀있는 몸, 청색이 도는 회색 다리가 인상적이다. 궁둥이 부분은 흰색이다. 부리의 길이가 15센티나 된다. 긴부리를 개펄 속에 넣고 어류, 패류, 갑각류, 수서곤충류 등을 잡아먹는다.

갈매기 종류로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붉은부리갈매기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그 다음으로 재갈매기와 괭이갈매기 순이다. 더러 검은머리갈매기도 간월암 주변에서 눈에 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도 겨울을 나는데, 개체수로는 노랑부리저어새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저어새는 몸색깔이나 생김새가 백로와 비슷하나, 부리가 좀더 길고 끝이 넓어 주걱같이 생겼다. 갯벌이나 해안의 얇은곳에서 부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먹이를 찾는 모습에서 저어새라 이름지어졌다.

천수만에는 이따금 흰꼬리수리가 나타나 잔잔한 호수를 긴장시킨다. 머리는 크고, 몸통색은 황갈색이며, 꼬리는 흰색을 띠며, 부리는 노란색이다. 흰꼬리수리가 공중에 뜨면 물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일제히 비상을 한다. 농경지에도 새들과 쥐들을 노리는 육식성 맹금류들이 자리하고 있다. 매·잿빛개구리매·황조롱이·쇠황조롱이·새 등이 그들이다. 새들은 해당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상태를 가장 상징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이다. 이곳에 맹금류들이 살고있다는 것은 생태계 피라밋의 구조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월도 언덕배기의 곰솔숲. 해송이라고도 한다.

효과적인 탐조를 하려면 시간 선택을 잘 해야한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은 우선 새의 모양이나 색깔구분이 쉽지 않아서 탐조의 즐거움이 반감된다. 바람이 심한 날도 역시 좋지 않다. 하루 중 탐조하기에 적합한 때는 아침과 저녁 무렵이다.

■가는길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산이나 홍성행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있다. 서산에서 창리 간월암 가는 버스가 수시로 있다. 승용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홍성에서 내려 29번 국도를 타고 갈산을 지나면 간월호까지는 10여분 거리다.

한글대장경 봉안은 부다피아외환카드로...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다피아카드 신규 발급과
대장경 봉안 불사를 동시에...

부다피아외환카드로
사찰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부다피아외환카드 신규 발급 1장으로 대장경 1권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명이 가입하면 장경각(보급형)도 함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카드사업단(02-725-1132)으로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